

세계 3위 규모 파도풀 ‘자이언트 웨이브’ 쾌감도 상상초월

김해롯데워터파크, 막내의 화려한 반격

오픈 두 달만에 입장객 15만명 달성
큰 규모 신상 어트랙션…재미 차별화
플리네시아에 온듯…이국적 이미지
홀라춤 배우기 등 참여 프로그램 풍성

늦게 나온 동생이 먼저 자리잡은 형들을 바짝 긴장시키는 모양새다. 5월30일 경남 김해시 장유면 김해관광유동단지 4000억원을 투자해 문을 연 롯데워터파크가 예상보다 빨리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다. 롯데워터파크는 대형 워터파크가 없어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경남 지역에 오픈해 기대를 모았지만, 한편에서는 워터파크 시장이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어 상황에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샀다. 하지만 오픈 두 달 째인 지금 롯데워터파크는 일부 우려를 불식하고 경남의 여름 물놀이 ‘핫 스팟’으로 자리 잡았다.

●7~8월 입장객 50만명 예상, 내년 ‘톱3’ 목표

롯데워터파크는 축구장 약 17개 크기인 12만 2777㎡(3만7000여평) 부지에 연면적 4만793㎡(1만2000여평)으로 1만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다. 롯데워터파크에 따르면, 공식 오픈 이후 7월 중순까지 누적 입장객은 15만명, 비수기인데도 오픈 초기였던 걸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이다. 요즘은 여름 성수기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입장객이 급상승해 주말에는 평균 1만명 이상 찾고 있다.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롯데워터파크는 7월 20만명, 8월 3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픈 당시 목표로 삼았던 내년 국내 워터파크 ‘톱3’ 진입이 눈 앞에 들어오는 기분 좋은 수치다.

●최고 인기 ‘자이언트 웨이브’…세계 3위 규모

후발주자로서 선두권을 쫓기 위해 택한 것은 규모의 차별화와 ‘신상’ 어트랙션이다. 롯데워터파크에서 가장 인기 높은 어트랙션인 ‘자이언트 웨이브’가 대표적이다. 실외 파도풀 ‘자이언트 웨이브’는 폭 120m, 길이 135m로 일단 규모가 세계 3위다. 최대 2.4m 높이의 파도가 가능하고 32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즐길 수 있다. 워터파크 방문객이면 한번은 꼭 이용한다는 파도풀에서 ‘뭔가 아쉽다’ ‘생각보다 시시해’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203m 길이의 ‘더블 스윙 슬라이드’와 18.9m 높이에서 급하강하는 ‘토네이도 슬라이드’도 국내 최대 규모다. 재미와 신선함에 민감한 젊은층을 겨냥한 신상 어트랙션은 ‘스윙 슬라이드’다.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스윙 슬라이드는 높이 13m, 길이 138m로 여두은 터널을 빠른 속도로 급하강한다.



올 여름 워터파크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김해 롯데워터파크.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규모의 차별화와 ‘신상’ 어트랙션을 강조해 주말 평균 1만명이 찾을 정도로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 (맨 위 사진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파크 중앙에 우뚝 솟은 롯데워터파크 아이콘 ‘자이언트 볼케이노’, 203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더블 스윙 슬라이드’, 동시에 1만3000명을 수용하는 롯데워터파크 전경, 스윙 슬라이드가 있는 실내 전경. 사진제공 | 김해 롯데워터파크

●플리네시아 무드, 롯데워터파크만의 차별점

롯데워터파크를 상징하는 아이콘은 파크 내에 우뚝 솟은 38m 높이의 자이언트 볼케이노와 특이한 모양의 캐릭터 ‘로키’가 있다. 이국적인

정서를 물씬 풍기는 두 아이코논 남태평양의 플리네시아를 연상케 한다. 롯데워터파크의 오리지널 캐릭터 로키는 플리네시아의 창조신 티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했다. 분화구에서 불기둥과 함께 물을 쏟아내는 화산쇼가 장관인 자이언트 볼케이노도 파도가 칠 때 울러 퍼지는 고동소리와 함께 플리네시아 섬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다른 워터파크와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플리네시아 무드’를 택한 롯데는 성수기를 맞아 이국적인 정취를 강조한 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 우선 티키 스테이지에서 사모아 원주민의 진행으로 하와이안 밴드 연주와 홀라춤 공연이 열린다. 홀라춤 배우, 사모아 전통 댄스 배우 등 고객 참여 프로그램도 있고, 플리네시아 전통의 파이어 댄스 공연도 볼 수 있다. 또 8월 24일까지 볼케이노 스테이지에서는 다이버들의 ‘코믹 다이버 쇼’가 열린다. 하루 3회 진행되는 ‘코믹 다이버쇼’는 코믹 다이버들의 볼케이노 대탈출을 소재로 자전거, 의자 등을 이용해 이색적인 다이빙쇼를 펼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퍼레이드와 공연 가득 야간엔 만원으로 놀자

내달 17일까지 밤 10시까지 운영

만원으로 즐기는 야간의 행복.

여름 성수기 워터파크의 매력은 무더위가 한풀 꺾인 밤에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롯데워터파크도 골드시즌을 맞아 8월17일까지 오전 8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롯데워터파크의 야간개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만원짜리 야간권이다. 롯데, 삼성, NH농협카드 등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고객 중 실적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오후 5시 30분부터 입장할 수 있는 야간권을 1만원에 제공한다. 또 제휴 카드로 결제하면 실적 상관없이 5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은 8월31일까지 현장에서 표를 사면 30% 할인 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을 늘리면서 파크에서 즐기는 볼거리도 늘었다. 롯데워터파크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운영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자랑거리다. 다른 워터파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여러 공연과 캐릭터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다. ‘볼케이노 이펙트 쇼’는 오후 7시 58분과 8시 58분 등 2회를 올려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실시한다. 티키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사모아 원주민과 함께 즐기는 공연도 오후 8시에 진행된다.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의 캐릭터 ‘로키’와 ‘로리’, 워터파크 캐릭터 ‘로키’들의 퍼레이드 쇼를 진행하며 다양한 캐릭터 상품도 판매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강원랜드 워터월드 우여곡절 끝에 착공

국내 유일의 복합리조트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착공한다.

강원랜드는 29일 오전 11시30분 폭포주차장에서 ‘강원랜드 워터월드’ 기공식을 연다. 기공식에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2차관을 비롯해 내외빈과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터월드는 ‘세계적 리조트’를 지향하는 강원랜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 지역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릴 효과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성 미비가 지적돼 한때 제동이 걸렸다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을 재개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업 확정 이후에도 강원랜드 사장과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 공석이 길어지고 노조도 정에 들어가 6월 말 예정이던 착공이 미뤄져 우려를 사기도 했다.

당초 강원랜드는 29일 착공식을 회사관계자와 지역민만 참석해 경과보고 형식으로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었으나, 워터월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추진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산자부 차관도 참석하는 대외 행사로 변경했다.

동부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워터월드는 총 사업비 1672억원으로 강원랜드 호텔 호수변과 폭포주차장에 5만8000㎡(약 1만7500평) 규모로 9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로 만들 예정이다. 실내와 실외시설로 나뉜 파크에는 590m로 국내 최장인 격류형 유수풀, 116m의 파도풀 등 풀 12개와 슬라이드 12기, 스파 15개가 들어선다. 2016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같은 해 6월에 실내시설을 먼저 오픈하는 부분 개장을 실시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한숨 돌린 팬텍…이통3사 채무상환 2년간 유예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 긍정적 검토
협력사 이탈 막으려면 빠른 결정 필요
단말기 구매는 이통3사별 판단할 전망

위기의 팬텍(사진)이 벼랑 끝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팬텍 상거래 채권의 상환을 향후 2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1531억원 규모로 24일 기준 이동통신3사가 팬텍과의 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상거래 채권 전액이다. 단, 단말기 구매는 이동통신3사가 각 사의 수급 환경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출자전환의 자선적인 채무상환 유예안은 이제 채권단의 논의를 거쳐져 된다.



채권단이 이를 조건으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팬텍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팬텍은 25일 280억원의 상거래채

권 만기를 맞는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팬텍 입장에선 채무 상환 유예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컸다.

현재 채권단도 채무상환 유예를 조건으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협력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채권단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또 이후에도 불안정한 재무구조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비슷한 위기에 다시 직면할 수도 있다. 팬텍은 채권단이 새로운 안을 가결하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지속하면서 추가 투자 및 국내의 시장 공략 등 독자생존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신세계 “희망장난감도서관 100호점까지 늘릴 것”

여수시 신세계이마트에 20호점 개관
매년 10개관씩…전국 100개관 목표

신세계그룹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교육·놀이문화 공간인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을 100개까지 늘린다.

신세계그룹은 2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전남 여수시 시청동 직장어린이집에 위치한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여수관 개관식(사진)을 열고 “20호점인 여수관 개

관을 계기로 매년 10여관씩 전국에 100개관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적인 교육·육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0~7세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고 학부모에게는 육아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놀이 공간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신세계 희망 배달 캠페인’에서 모인 기금으로 짓는다.

신세계 희망배달기금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



액만큼 추가로 지원해 기금을 조성하는 매칭그랜트 개인기부 프로그램이다. 현재 사원에서 CEO까지 임직원 3만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하이트진로 ‘하이트 비치 페스티벌’ 진행

하이트진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하이트 비치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인기 가수들과 함께 해변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하이트 비치 DJ 파티’가 개최된다. 7월27일에는 ‘명수녀 락밴드’의 박명수와 김예림, 7월 31일에는 힙합 뮤지션 박재범과 로꼬, 어글리릭, 8월1일에는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걸그룹 티너가 출연해 여름밤을 수놓을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는 25일부터 8월3일까지 매일 밤 11시 ‘경포해변 DJ페스티벌’을 진행한다. SR 컴퍼니, OMD 등 국내 정상급 DJ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 밖에도 물놀이를 즐기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이트 쏘 존’과 여성 고객들을 위한 파우더룸과 포토존 등을 상시 운영해 피서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관광공사, 외국인 대상 글로벌 방한 캠페인

한국관광공사는 새 한국관광 브랜드 ‘이미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 개발을 기념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방한 캠페인 ‘투어: 이미진네이션(Tour Imagination)’을 실시한다. 8월 31일까지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체험을 희망하는 응모자들의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2인1조 총 16명에게 10월과 11월에 3박4일간의 한국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는 글로벌 방한 캠페인 홍보대사 박빙의 사인이 담긴 앨범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참가자들의 한국 방문 스토리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글로벌 방한 캠페인 실시와 함께 홍보대사인 인기그룹 박빙이 주연을 맡은 새 TV 광고를 제작해 온라인 캠페인과 동시에 15일부터 전 세계에 론칭했다.

김재범 전문기자